

그리스 신화의 형성과 발전, 변형

20203152 최정민

목차

1. 서론

2. 본론

- 1) 그리스 신화의 탄생
- 2) 테세우스
- 3) 페르세우스
- 4) 헤라클레스
- 5) 메데이아
- 6) 오디세우스

3. 결론

4. 참고문헌

1.서론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탄생하여 수천 년이 지난 2023년 현재에도 전해지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응용, 재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까. 이 글을 통하여 그리스 신화의 기원과 탄생, 발전에 대하여 그리스 신화의 대표 인물 5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본론

1)그리스 신화의 탄생

그리스 신화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 지중해에서는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하는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 경에는 아카이아 인들이 북방으로부터 펠로폰네소스반도로 남하하며 미케네 문화를 구축했다. 그 이후 기원전 12년 도리스인들이 침입하며 이주민들과 그리스 본토의 주민들이 섞이며 고대 그리스 문화와 신앙을 이루었다. 이후 에보니아 인들이 히타이트 신화를 가져와 변형하여 그리스 신화를 탄생시켰다. 에보니아 인들이 그리스 신화를 만들 때 단순히 히타이트 신화를 변형하고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화의 실재 증거를 찾고 그것을 신화에 삽입하여 이야기를 훨씬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터키의 팻빛 언덕과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과 이스키아 섬의 온천이 그 예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 신화는 이후에 여러가지 영웅들의 서사가 추가되면서 점점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다.

2)테세우스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크레타의 반인반수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테세우스의 이야기이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포세이돈을 속이고 흰 황소가 아닌 평범한 황소를 바치자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저주를 내렸고 그렇게 파시파와 황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황소의 모습을 한 괴물인 미노타우로스이다. 미노타우로스가 사람을 잡아먹는 등 흉포한 모습을 보이자 최고의 장인인 다이달로스를 찾아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미로 궁전인 라비린토스를 만들어 가두어 버린다. 이후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분노한 미노스가 아테네를 침공하고 아들의 목숨의 대가로 꾸준히 처녀와 총각 7명씩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쥐 버린다. 세 번째 제물이 바쳐질 때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직접 자원해서 크레타로 잠입하여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쳤다. 이 이야기에서 미노타우로스와 테세우스는 각각 크레타와 아테네를 대표하는데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크레타의 식민 지배와 독재에서 아테네를 해방시킨 영웅이 된다.

미노타우로스 신화의 역사적인 기원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안드로게오스를 추모하기 위한 장례 경기라는 것이다¹⁾.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XVI에서 이것이 미노스 왕이 아테네에서 살해당한 자신의 아들 안드로게오스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장례 경기이고 제물로 바쳐진 아테네 사람들은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미노타우로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의 이름이 양날 도끼에서 유래한 라비린토스이고 그 당시 양날 도끼는 사제들의 물건임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 해준다.

3)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딸과 제우스 사이에 낳은 딸이다. 아크리시우스가 외손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딸 다나에를 감금하고 페르세우스를 출산하자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바다에 버린다. 하지만 둘은 죽지 않고 딕티스와 폴리덱테스 형제가 지배하는 세리포스 섬에 도착했고 그중 폴리덱테스가 다나에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하지만 다나에가 거절한다. 그 후 그가 피사의 왕녀와 결혼할 때 국민들에게 결혼식 비용을 요구하는데 가난한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주문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요구였지만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와 헤르메스 그리고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메두사를 죽이는데 성공한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지고 세리포스로 돌아오는 길에 창던지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페르세우스가 던진 창이 아크리시우스를 죽이게 되며 신탁이 완성된다.

페르세우스가 죽인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괴물 중 하나인데 아테네의 저주를 받아 흉측한 괴물로 변했다. 메두사의 외형적 특징은 시체 같은 얼굴과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체 같은 얼굴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체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형상화 한 것이다. 지금처럼 장례시설과 절차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쟁이나 전염병 등이 잦았던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체에 노출될 일이 많고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시체의 형상을 한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집트의 베스나 인도의 라울 등이 있다. 그리고 메두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뱀으로 되어있는 머리카락은 고대에 있던 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 신화들에서 뱀은 신에 맞서는 부정적인 존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 신의 힘줄을 잘라 동굴에 가둔 거대한 뱀인 티폰이 등장한다. 여기서 티폰은 가뭄이나 지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 존재로 등장하고 제우스에 의해 제거된다.²⁾ 이렇듯 페르세우스의 적으로 등장하는 메두사는 그 당시 부정적인 요소들인 시체와 뱀을 조합하여 탄생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의 괴물이 되었다.

4)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인간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 기간테스를 무찌를 수 있다는 예언을 듣고 알크메네와 관계해 낳은 자식이다. 헤라클레스는 테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테베의 왕 크레온의 장녀 메가라와 결혼한다. 이후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가족들이 사자로 보이게 만들어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하게 만든다. 이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네메아의 사자 퇴치, 독사 히드라 퇴치, 암사슴 생포 등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각각의 과업들은 야수적 폭력, 성적 욕망, 자연의 폭력 성 등을 상징한다. 헤라클레스가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영웅이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과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통제하는 인격 수양의 과정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데이 아네이라에 게 독살당하지만 제우스에 의해 부활해 신이 된다. 신의 도구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신으로 인해 스스로의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절망에 빠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과업을 완수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나중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마침내 신이 된다. 이런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인들에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강한 정신력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변형되며 종교나 신화에 영향을 미쳤다.

5)메데이아

메데이아는 콜키스의 공주였지만 황금 모피를 찾으러 온 이아손에게 한눈에 반해 이아손을 돕기 위해서 마법의 도구들을 주어 아이에테스의 시험을 통과하게 도와주고 직접 황금 모피를 훔친다. 이후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동생을 살해하고 이아손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펠리아스를 살해하는 등 이아손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둘은 결국 추방당하고 만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와의 약혼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이런 메데이아를 배신하고 왕이 되기 위해 코린토스의 공주 크레우사와 결혼한다. 이렇게 이아손에게 버림받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복수를 계획하며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에게 피난처를 청원한다. 이후 메데이아는 크레우사와 크레온을 죽이고 이아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을 죽인다. 이때 이아손이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미 아들들은 죽고 메데이아는 아들들의 시체와 함께 헬리오스가 보낸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신화에서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가족까지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으며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인 악녀로 묘사된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아손을 최초로 그리스 외부로 모험을 떠난 영웅이자 주인공이었고 메데이아는 악녀로 그려진다. 하지만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디아>에서는 이아손을 신화와 정 반대로 운명에 도전하고 자신을 희생한 영웅에서 권력을 위해서 부인과 가족을 배신한 이기적이고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으로 묘사된다. 또한 메데이아를 주인공으로 하여 메데이아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³⁾

헤로도토스의 의견에 따르면 메데이아가 그리스 인들에게 납치된 콜키스의 공주라고 설명했다.⁴⁾ 이아손이 배를 타고 떠난것이 그리스가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 건설에 해당하고 황금 양털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콜키스의 식민지화에 해당한다. 즉 실제 그리스인들의 영토 확장과 식민지화 그리고 납치가 시간이 지나며 신화 속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신화 또한 신화가 비극으로 재탄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극을 쓴 시인의 관점이나 생각이 반영되어서 내용이 변형되고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

6)오디세우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는 이타케의 왕 오디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이후 귀향길에 수많은 역경을 거치게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바다를 헤매다 이타케로 돌아오게 되고 아내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내와 간신히 재회하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수많은 역경을 겪지만 욕망에 저항하지 못한 부하들과 달릴 이를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페넬로페의 구혼자들 108명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이전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잔혹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일종의 봄 축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우선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를 처치하는 날이 아폴론의 축제일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을 통하면 오디세우스가 그 많은 수의 구혼자를 처치하는 장면도 설명이 된다. 이 복수극이 일종의 제의적 살해이고 구혼자들이 신에게 바쳐진 희생이라는 해석을 통하면 헤카톰베(백 마리의 희생제)가 108명의 희생자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오디세우스 일행이 다음날 도피한 것은 희생 동물을 도살한 사람이 죄지은 듯이 도망치던 관습을, 구혼자 무리 중 두 명이 풀려났다는 사실은 죄수를 방면하던 축제 관행과 연결되게 된다⁵⁾. 또한 기이하고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한 하녀들의 처형 방법과 멜란티오스가 당한 징벌도 그 당시의 관행과 관련된 것들과 연관 지어서 설명이 가능해진다.⁶⁾

3.결론

그리스 신화는 히타이트 신화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신화와 이야기들로부터 기원하여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스 지역을 이용하여 변형되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이야기 더해지고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인물이나 관습 등에서 영감을 얻어 유래했다는 증거들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그리스 신화는 창조된 이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내용이 추가되고 극작가 들을 통해 재해석, 재창조 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이 아닌 계속하여 사랑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천 년 이후인 지금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었다.

4.참고문헌

- 1) 박희영 테세우스 영웅 신화에 대한 분석 839p
- 2) 이재정 러시아 문화에 녹아있는 히타이트 문화의 흔적들 165p
- 3) 이동수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194p
- 4) 최혜영 고대 지중해 여성 납치담론과 식민 활동 38p
- 5) 강대진 오뒷세우스의 복수와 봄 축제 128p
- 6) 강대진 오뒷세우스의 복수와 봄 축제 128-129p